더 나은 내일 한의약 웹진
2025. 10월 vol. 21
함께한 일상&이벤트
한방울톡톡

한방울과 황단이의 한의약 속 우리말 5.
학을 떼다

'학을 떼다' 란?

"학을 떼다"는 오늘날 무언가에 크게 질려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. 본래는 옛날 학질(瘧疾)을 앓고 난 뒤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.

한의학에서는 학질을 습열성 열병으로 보고, 청열 해독과 보기(補氣)처방으로 치료했습니다.